

# 내 마음속 ‘시간의 점’을 만들어라, 워즈워스

최효찬  
칼럼니스트



서구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그랜드투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엘리트 교육의 최종 완성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역사적인 유적지나 명승지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게 이른바 ‘그랜드투어(grand tour)’의 시작이었다. 그랜드투어는 귀족이나 명문가의 자제들이 인솔 교사를 대동해 떠나는 단체여행이었고 더욱이 명사들을 방문해 사교나 매너를 배우는 기회여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럭셔리한 그랜드투어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이른바 ‘프티투어(petit tour)’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랜드투어, 즉 ‘대여행’에 대조되는 ‘소여행’이 등장한 것이다. 프티투어는 주로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에서 저렴한 여행 비용을 들여 주로 걷거나 마차를 빌려서 이동하며 유럽 각 지방의 대로와 냇가들을 찾아다니는 도보여행이었다. 일부 여행객과 작가, 예술가들은 후미진 길을 걸으며 사상과 영감을 떠올리기도 했다.

프티투어 시대를 연 사람은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1770~1850)였다. 흔히 자연주의 시인으로 불리는 윌리엄 워즈워스는 당시 유행한 ‘그랜드투어’가 아니라 ‘프티투어’로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워즈워스는 도보여행을 통해 ‘발’로 시를 쓴 시인이었다. 그 시작은 알프스 여행이었다.

“우리 삶에는 시간의 점이 있다./ 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점에는/ 재생의 힘이 있어/ 이 힘으로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가 높이 있을 때는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서곡’에서)

워즈워스가 스무 살에 알프스 여행을 할 때 보았던 거대한 자연의 한 풍경이 평생 머릿속에 남아 시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이렇게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가슴 속에 파고들어 힘을 주는 자연 속의 한 장면을 워즈워스는 ‘시간의 점’이라고 불렀다. 워즈워스는 한때 프랑스혁명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이지만 공포정치로 환멸을 느끼며 정신적 위기에 직면한다. 이때 그는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연과의 감

응력을 회복하면서 더욱 깊은 인간애에 도달하게 된다.

길잡이를 택해야 한다면/ 떠도는 구름보다 나은 것이 없다./길을 잃지 않을 테니.

이는 그 유명한 ‘서곡(The Prelude)’의 도입부다. 워즈워스 스스로 자전적인 성장을 담았다는 이 시는 1805년에 처음 완성되어 평생 퇴고를 거쳤고 1850년 그가 숨을 거둔 후에야 출판되었다.

워즈워스가 말한 ‘시간의 점’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우리 가슴을 고동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걷기를 예찬한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그 역시 도보여행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뇌리 속에 저장된 시간의 점 덕분에 삶을 재생시킬 수 있었고 그가 쓴 수많은 시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재생의 힘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그때는 축복에 휩싸여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서곡’에서)

그런데 워즈워스가 말한 ‘시간의 점’은 빅터 프랭클이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의 다음 구절과 맥락을 같이한다. 유대인인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정신분석학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극한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데 가장 도움을 주고 위안을 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소중한 모습이며, 신앙이며, 괴이한 유머 등이다”라고 한다. 즉, 몇 시간 후에 가스실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처절한 현실에서 그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것은 평소에 아내와 나눈 대화의 기억들이라고 한다. 아내의 맑은 모습과 목소리, 미소 등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괴로움을 잊는다는 것이다. 봄날 아내와의 꽃구경과 같은 어느 한순간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다면 삶이 위기를 맞을 때 더없이 소중한 기억으로 초대되고 다시 살아날 에너지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속 ‘시간의 점’이 없다면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불편한 프티투어 혹은 도보여행을 떠나볼 일이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생의 힘이 되는 ‘시간의 점’은 고단한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